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와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쉬지 않고 나아갑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 ▶ 치유, 회복과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출발의 달  
성장과 성숙 주간

## 건강한 믿음 성장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에  
네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요한 3서 1:2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 예배 및 모임안내

- 주일예배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am
- 주일학교 Sunday School / Sunday 11:30 am (뉴 라이프 교회)
- 주일 성경공부 Sunday Bible Study / Sunday 11:00 am
- 금요 찬양예배 Friday Service / Friday 8:00 pm
- 새벽 경건회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 to 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주중 성경공부 Bible Studies / Tuesday 8:00 pm (zoom)
- 일대일 제자훈련 Discipleship Classes / Monday 10:00 am

## 교회위치 Location



800 E. Palatine Rd., Palatine, IL 60074  
847) 691-7846  
www.churchofservant.com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교회/교우)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김윤경 사모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민수기 1:47-54 성도의 거룩한 사명과 지위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결단의 기도
헌신과 열매 (봉헌/나눔)	봉헌 최선운 집사 / 구 민 집사 ★봉헌찬송 / 213장, 4절 (통일찬송 348장) 나의 생명 드리니
세상과 삶으로	★찬양 / 찬송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섭니다.

예배시간 10분 전 휴대전화를 끄고,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금요 찬양 예배

연합예배 / 살롬 장로 교회  
찬양과 기도

성경: 사무엘상 18:20-29

묵상제목: 두려움으로 평생 대적하다

2023년 10월17일부터 12월21일까지 네팔의 도티와 머스탕 지역을 방문했다. 외부인의 활동이 제한된 지역의 복음사역을 위해 기도로 준비했다. 기도는 "유통기한"이 없다는 진리를 확인했다. 특히 머스탕 지역에서 사역 중, 많은 분들의 기도 후원을 강력하게 깨달았다. 데이브와 탐바는 트레킹 가이드와 통역으로 수고했고, 하루에는 12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적도 있었다. 전도여행은 형언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들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준비도 체험했다. 가정으로 초청받아 야크 버터 차를 마시며,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었고, 놀라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 가이드의 친구의 가족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되돌아보면, 전도여행 중 만난 이들은 정말 큰 선물이었다.

선교사님의 후원을 받는 추키와 파샤는 산골에서 몇 명의 아이들을 가르친다. 통학거리가 멀거나, 어린 동생들을 돌보거나, 가난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없는 학생들이다. 어린이들이 신약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만나고, 도티 땅을 변화시키는 영적 거목들로 성장하기를 꿈꾼다. 성도의 교제를 가질 수 없는 외진 곳에서 추키와 파샤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어가도록 기도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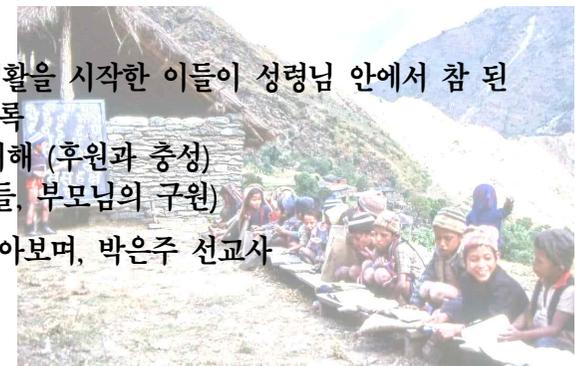
산주란 자매는 깊은 산중에 홀로 세 아이들을 키운다. 이 산골에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한다.

네팔의 미전도 지역 산골에서 복음을 전한 경험은 큰 특권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축복이 되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더 헌신하며 충성하기를 다짐한다. 언제나 두 손 모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해주세요

1.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들이 성령님 안에서 참된 성도의 교제를 갖도록
2. 새해의 사역들을 위해 (후원과 충성)
3. 건강을 위해 (가족들, 부모님의 구원)

뉴욕에서 한해를 되돌아보며, 박은주 선교사  
2024년 1월



우리는 하나님이 지휘하시고, 예수님이 싸우시고, 성령님이 지원하시는 전쟁에 참가한 군사들이다. 혹자는 “전쟁이 싫습니다. 체질상 저와 맞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목회자나 대표자들이 싸우는 것 아닙니까? 믿은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제발 이 전투에서 빼주시오.”라고 생각할 수 있다. 몇 소수만 대표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군사로 징집되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해, 모든 성도는 초신자든 직분자든 상관없이 이 영적 전투를 피할 수 없다.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전쟁은 더 민감해진다. 어린아이 때 싸우는 전투가 있고, 청년일 때 싸우는 전투가 있다. 영적 전쟁을 피하려거나, 무시하려하면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이 닥친다. 믿음의 삶에서 당하는 위기는 영적 전쟁보다는 안일함 때문일 경우가 더 많다.

적을 대면해 싸우는 것이 유리할까? 도망하며 뒤에서 마주하는 것이 쉬울까? 사탄이 우리 등 뒤에서 공격하도록 후미를 내어줘서는 안 된다.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이 싸움은 맹렬해진다. 세상의 전쟁은 냉전도 있고, 휴전도 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은 냉전도 휴전도 없다. 사탄과의 평화협정은 더더욱 없다. 사탄은 거짓 평화로 교회와 성도를 유혹하며, 넘어뜨리려한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세상이 존재하는 한,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영적 전쟁에서 예외가 되는 성도는 없다. 명예 제대도, 의가사 제대도 없다. 도망갈 수도 없고, 대체복무도 없다. 더욱이 영적 전쟁에서 병역의무를 거부할 수 없다. 전시 중, 병역의무 거부하는 적에게 자신을 공양하는 꼴이 된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이 믿음이 아닌 불신앙과 불평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싸우기를 거부한 결과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다. 싸우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예비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두려움에 빠져서 불순종하고, 안일한 태도로 악한의 영과 죄와 싸우기를 거부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 더 크게 방황하게 된다. 우리는 모두 악한의 영과 싸우는 영적 군사들이다. 일주일 내내 적들에게 패배하고, 교회가 패배를 보고하는 자리가 아닌, 승리를 보고하는 하는 예배로 만들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 싸운다. 승리가 약속되었다. 크고 위대하신, 강하신, 용사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영적 군사들이 되자.

기억하자.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피할 수 없다.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용맹스럽게 나아가자, 약속의 산지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자.

섬김의 교회를 방문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후, 점심찬교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역/행사**

1월 새 출발의 달입니다.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에 네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말씀과 함께 시작합니다.

1. **믿음성장과 신앙성숙 주간** 교회와 성도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섬김, 소망의 인내로 치유, 회복과 나눔의 증인입니다.
2. **새해 특별 새벽기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로 섬기며 승리합니다.
3. **성경읽기운동** 성경1독 운동이 계속됩니다.
4. **금요찬양예배** 19일은 **살롬장로교회**에서 함께 모입니다.
5. **제직회/공동의회** 21일 **주일예배** 후에 가집니다.
6. **Oikos 모임** 21일 저녁 **최내권/선운 집사** 가정에서 모입니다.
7.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와 성도**가 됩니다.

**교우소식**

한국방문: 구은강 집사  
싱가폴방문: 유마리아자매  
가족모임: 김훈태 집사 가정

**생일축하**

김기자(4) 김영준(7) 이진아(8) 박강현(20)  
구민성(26) 최윤정(28)

**1월 사역**

성장/성숙 주간(14-20) 제직회/공동의회(21) Oikos 모임(21)  
소금/빛 된 주간(21-27) 선교주일(28) 선교주간(28-2/3)

**한 주간의 말씀** 잠언 16:1, 3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개요** 성도의 특권과 거룩한 사명 / 민수기 1:47-54

**기도제목**

병역의무 대신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는 레위 지파의 거룩한 의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아론과 그의 가문은 제사장으로  
 레위의 3 가문, 고향은 성소와 지성소의 기구와 기물을, 게르손은 휘장과 덮개,  
 문장과 물두멍, 므라리는 성막과 뜰의 기둥, 널판, 그 받침들과 말뚝들, 락과 줄을  
 성막 주변 가장 가까운 곳에 거하며 이스라엘을 섬겼다.  
 레위의 특권과 거룩한 사명은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우리 역시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며,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에 충성하자.

**말씀요약**

불법과 편법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하면, 사회문제가 되는데, 레위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포함되지 않았다. 병역이 아닌 특별한 의무를 수행했다.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는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은 어린양을 준비하고 죽여 그 피를 출입문에 칠했다. 순종할 때, 죽음의 사자는 그 피를 건너갔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큰 절기가 되었다. 레위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대신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섬겼다. 아론과 그의 가족들은 제사장으로 섬겼고, 레위는 성막,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했다.

제사장들이 제단과 성소에서, 레위 3 가문이 성막과 제단에 관련 기구들을 관리했다. 진을 칠 때, 제사장들과 레위 가문은 성막 주변에 자리했고, 그 밖같이 이스라엘의 각 진영이었다. 행군할 때, 이스라엘의 6지파 뒤를 레위가 따르고, 그 뒤를 나머지 6지파가 따랐다. 고향은 거룩한 기구들을 어깨로 운반했고, 게르손은 휘장과 덮개, 뜰의 휘장과 문장, 물두멍을 수레로 운반했고, 므라리는 성막의 기둥, 널판과 락, 락의 기둥들, 받침들과 말뚝들과 줄을 수레로 운반했다.

레위의 임무와 이스라엘의 임무는 아주 뚜렷이 구별되었다. 영역과 역할은 경계선 역시 구별이 되었다. 거룩함을 가장 확실히 보여준다. 성막은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곳이다. 거룩한 곳은 구별된 사람들의 영역이다. 평민이 성막으로 가까이 나가면 죽음을 직면했다. 이렇게 엄격한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스라엘의 거룩하지 않음을 명확히 깨닫는다.

새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감당 할 사명을 분명히 하자. 우리는 이 시대의 레위 사람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며 중보한다. 선택이 가능하다면, 중보의 짐보다, 군역이 훨씬 낫다. 하지만, 이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다. 레위 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는 특권을 부여받는다. 성도는 모두 거룩한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중보의 특권을 위탁하셨고,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은혜를 넉넉히 주신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받았으니, 하나님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자.

1. 2024년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의 사역들이 열매를 맺도록
2. 삶 속에서 말씀묵상과 기도로 영성 훈련하도록
3. 전도 우리 삶 속에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4.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5. 자녀들의 영적성장과 Youth Ministry를 위해
6. Oikos 가정사역을 통해 회복과 전도의 은혜를 누리도록
7. 선교지들과 선교사들을 위하여: 네팔/뉴욕(박은주 선교사)
8. 이웃 교회들과 연합사역을 위해



**예배 섬김이**

<b>주일기도인도</b>	1월 7일 박진성 집사
	14일 김운경 사모
	21일 최선운 집사
<b>주일봉헌인도</b>	28일 구 민 집사
	1월 7일 김훈태/최선운 집사
	14일 최선운/구 민 집사
	21일 구 민/오정은 집사
<b>주일예배 안내</b>	28일 오정은/김훈태 집사
	1월 구 민 집사
	2월 김훈태 집사

**섬기는 사역자들** 지도 목사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교육전도사 (Youth Minister) Jacob Kim 전도사  
 찬양인도자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